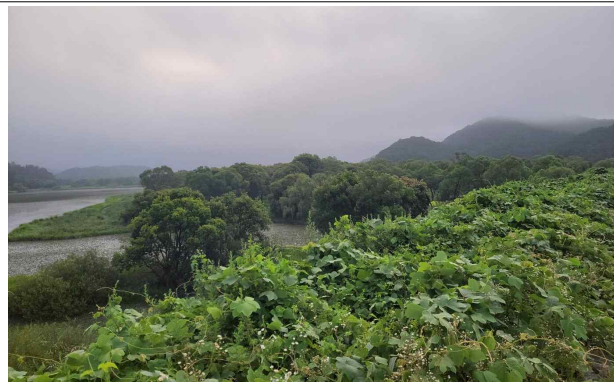


| 모 니 터 링 일 지 | | | |
|-------------|--|-----|--------|
| 일시 | 2025. 7 . 20 . 낮 11~12 | 장소 | 관동,한터들 |
| 날 씨 | 맑음 (31° C) | 참여자 | |
| 경관 | 폭염으로 지쳐있던 논밭이 많은 비로 파릇해지고 공기도 상쾌하고 싱그럽다. 수로마다 물이 한가득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. 죽은 소나무들은 부러져서 쓰러져있다. | | |
| 식물 | 며칠의 폭우후 모종을 정식한 콩,들깨가 쭉쭉 자라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.폭염의 날씨로 벼가 뿌리를 못내려 횡한 논이 많았는데 이번 비로 벼가 어느정도 어울려가고 있다. | | |
| 새 | 쇠백로 6마리,왜가리5마리가 보인다.따오기도 6월보다는 줄었지만 자주 보이는 편이다. 청둥오리가 6월에 두둑에 알 8개를 낳아 품고 있다. 벼이삭,풀등을 뜯어 둥지를 보수하며 키워내고 있다. 알의 크기는 계란크기만하다. 동료오리들이 고생한다고 응원해주고 간다. 오리가 외출할때는 이것저것 끌어모아 덮어놓고 간다. 신기하다. | | |
| 기타 | 토평천 수변생태벨트는 습지와 그 주변을 싹 다 제초작업을 해서 시원하다. | | |



| 모 니 터 링 일 지 | | | |
|-------------|--|-----|------|
| 일시 | 2025. 7 . 15 . 06:00 | 장소 | 모곡제방 |
| 날 씨 | 흐리고 비 | 참여자 | |
| 경관 | 긴 가뭄 끝에 늦은 장마가 계속되고 있다. 늪과 식물 그리고 운무가 적당히 있어 그야말로 천연 생태계의 모습이 장관이다. | | |
| 식물 | 수생식물이 늪을 뒤덮었다. 왕버들,마름,기타 식물들이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. 농부들의 생업인 벼들도 잘 자라고 있다. | | |
| 새 | 새들의 먹이활동 장소가 마름등으로 뒤덮여있다. 빠꾸기 소리가 들리고 왜가리가 한 마리 보인다. | | |
| 기타 | | | |



| 모 니 터 링 일 지 | | | |
|-------------|---|-----|-------|
| 일시 | 2025. 07. 13. 15:00 (일요일) | 장소 | 대학저수지 |
| 날 씨 | 맑음 (32도) | 참여자 | |
| 경관 | <p>기온이 많이 올라가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난다. 숲은 진한 색으로 우거지고 있다. 벼 심은 논에는 여러 종류의 새들이 날아든다.</p> | | |
| 식물 | <p>저수지 주변에 잡초들은 심고 가꾸지 않아도 잘 자란다. 연꽃이 만발하여 저수지를 빛낸다. 갈대들도 물속에서 잘 자라고 있다.</p> | | |
| 새 | <p>저수지 옆 벼 심은 논에 물오리들이 때를 지어 놀고 있다. 가까이서 보기는 오래만이라 많이 반가웠다. 날이 더워서인지 따오기가 요즈음은 뜸하다.</p> | | |
| 기타 | | | |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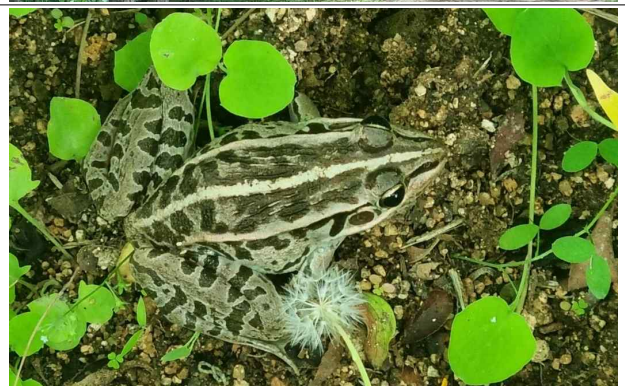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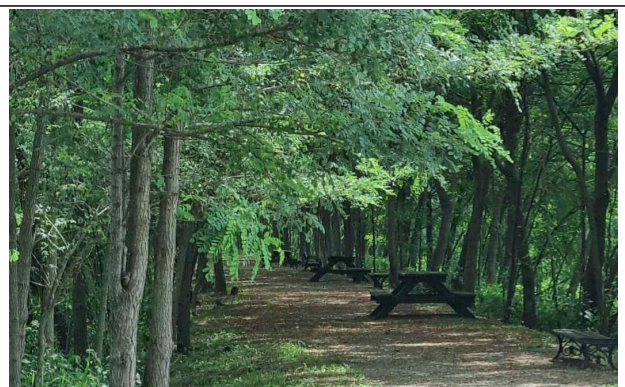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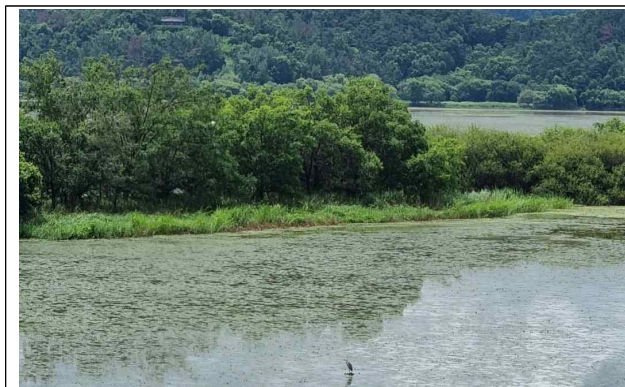
| 모 니 터 링 일 지 | | | |
|-------------|---|-----|--------|
| 일시 | 2025. 7 . 8 . 오후 5시 | 장소 | 사지포 제방 |
| 날 씨 | 맑음 (33° C) | 참여자 | |
| 경관 | <p>계속 비는 안 오고 폭염이 계속 되는 무더운 날씨입니다.</p> <p>사지포늪에는 연이 무성하고 꽃도 피었습니다.</p> <p>아침에는 여름철새들이 시끌시끌 하던데 지금은 조용합니다.</p> <p>비는 안 오지만 나무들은 잘 자라고 바닥에 풀은 마르고 있습니다.</p> | | |
| 식물 | <p>이태리포플러는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어 다시 바닥에 솜뭉치가 굴러 다닙니다. 나무밑 언덕에는 개망초가 큰 군락으로 있으나 가뭄으로 꽃은 시들합니다. 붉은토끼풀과 애기똥풀은 꽃이 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접시꽃이가 날아 왔는지 한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.</p> | | |
| 새 | <p>사지포에는 연이 덮혀 새들은 보이질 않고 여름 작은새들은 조금 보입니다. 대대벌판에는 백로와 왜가리들이 논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새로 태어난 따오기도 어미새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.</p> | | |
| 기타 | 대대벌판에서 따오기가족 발견 | | |



| 모 니 터 링 일 지 | | | |
|-------------|--|-----|------------|
| 일시 | 2025. 7 . 16 . 오전 9시 | 장소 | 장재마을 앞 목포늪 |
| 날 씨 | 흐리고 비 (28° C) | 참여자 | |
| 경관 | 왕버들 군락지 나무들이 계속 내리는 비로 수위가 높아져 물에 많이 잠김. 늪 주변 산의 소나무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다. | | |
| 식물 | 늪 전체에 마름,개구리밥등이 뒤덮고 있다. 작년 7월에는 자라풀이 많았는데 올해는 잘 확인이 안된다. | | |
| 새 | 왜가리 한 마리, 작년에 비해 적게 보인다. | | |
| 기타 | 해가 가면 갈수록 겨울,여름새들이 점점 줄어드는것같다. | | |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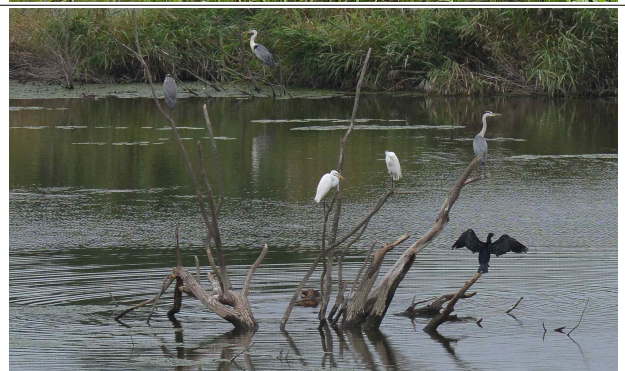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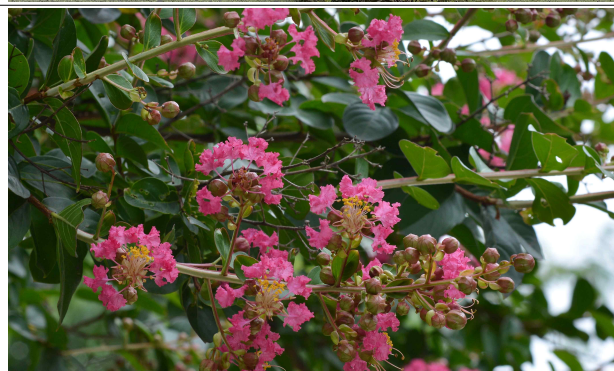
| 모 니 터 링 일 지 | | | |
|-------------|--|-----|----------|
| 일시 | 2025. 7 . 15 . 11:00~ | 장소 | 우만,주매 제방 |
| 날 씨 | 맑음 (27° C) | 참여자 | |
| 경관 | 인적이 없이 한산한 늪이다 가을하늘처럼 뭉게구름만 높이 떠있다. | | |
| 식물 | 메꽃,망초가 많이 눈에 띈다. | | |
| 새 | 늪과 하늘에 왜가리가 3마리, 흰뺨검둥오리가 7마리 보인다. | | |
| 기타 | 여름 잠자리와 개구리를 보았다. | | |



| 모 니 터 링 일 지 | | | |
|-------------|--|-----|--------|
| 일시 | 2025. 7 . 7 . 오후 | 장소 | 세진마을 앞 |
| 날 씨 | 맑음 (37° C) | 참여자 | |
| 경관 | 매일 기온이 37℃가 되어서인지 조금은 한산한 느낌이다. | | |
| 식물 | 회관 주위에 무궁화는 활짝 피어있다, 주의에 풀들은 무성하다 | | |
| 새 | 왜가리등이 가끔 보이고 작은 새들은 안보인다 | | |
| 기타 | 양파 마늘작업은 끝나가고 논에는 모가 심겨져있다. 비가 오지를 않아서인지 모든 작물이 더디게 자라고 있다. | | |



| 모 니 터 링 일 지 | | | |
|-------------|--|-----|----------|
| 일시 | 2025. 7 . 16 . 08:30~11:00 | 장소 | 산밖별 복원습지 |
| 날 씨 | 조금 흐림 (24° C) | 참여자 | |
| 경관 | 흐린 날씨였고 바람은 선선하다.비에보가 있고 공기가 눅눅하다. 매미 우는 소리가 들리고 잠자리가 여기저기 날아다닌다. 복원습지는 수생식물로 표면의 90%이상이 덮여있었다. 연꽃이 드물게 피어있다. | | |
| 식물 | 배롱나무의 홍자색꽃이 피어있다.봉우리가 30%있다. 참느릅나무의 새잎이 붉은색을 띄며 돋아나고 있다. 밝은 주황색의 원추리꽃,밝은 보라색의 부처꽃이 피어있다. | | |
| 새 | 산밖별 복원습지- 후투티3마리가 나무사이로 날아다님. 청딱다구리 1마리가 나무위에서 울고 있다. 뺨꾸기 소리가 들린다. 억새밭에서 개개비의 울음소리가 들린다. 제비 3마리가 먹이활동중이다. 큰부리큰까마귀 2마리가 펌프장 위 안테나에 앉아있다. 떼까치 암컷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있다. 토평천 하루와 옥천마을논-왜가리5, 민물가마우지6, 중대백로 2마리가 나무위에 앉아있다. 흰뺨검둥오리8, 중대백로10마리가 빈논에서 먹이활동중이다. | | |
| 기타 | | | |



| 모 니 터 링 일 지 | | | |
|-------------|--|-----|------|
| 일시 | 2025. 7 . 12 . | 장소 | 신당마을 |
| 날 씨 | 32 ℃ | 참여자 | |
| 경관 | 체험장 옆 밭은 귀촌한분이 2~3년 전부터 이제 보리를 거두고, 메주콩을 심기 위해 밭을 갈고 계신다. | | |
| 식물 | 2~3년전에 맛있게 따먹던 뽕나무는 생명력과 면역력이 떨어져 벌레들에게 잠식당했다. 조그만 벌레들이 커다란 나무를 앙상하게 만들어 버렸다. 곡식,과일,야채들도 성장률이 낮아져 먹거리들의 치열한 파동이 예상된다. 해바라기가 동네 골목을 환하게 만들어준다. | | |
| 새 | 제비들이 예전 제비집을 보수하여 새끼를 치고 날아다니더니, 어느 틈에 옆에 다시 집을 짓고 알을 품고 있다. | | |
| 기타 | 저녁 무렵 뜨거운 열기는 식어져 약초밭에 풀을 뽑고서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보름달이 보인다. 붉은 색에 가까운 달을 보니 내일도 상당히 더울 듯 싶다. | | |



| 모 니 터 링 일 지 | | | |
|-------------|--|-----|-------|
| 일시 | 2025. 7. 23 (12:30-13:00) | 장소 | 목포 일대 |
| 날 씨 | 맑음. 영상 33.5도 | 참여자 | |
| 경관 | 비 온 다음이라 물에 잠겼다가 물이 빠진 흔적 들이 길가의 나무와 풀들에 흙으로 많이 덮여 있으며 그래도 높은 아무런지도 않게 풍광을 보여줌 | | |
| 식물 | 길 가장자리에 풀들과 나무에 물에 잠겼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음. 늪에는 마름과 멀리 수생식물들이 덮여 있음. | | |
| 새 | 건너편에 왜가리들이 보이고 물까치와 작은새들도 보임. | | |
| 기타 | 며칠 전 내린 폭우로 징검다리는 물이 차서 흔적도 보이지 않고 통제선이 쳐져 있음. | | |

